

보도시점 2025. 4. 16.(수) 12:00 / 배포 2025. 4. 16.(수) 08:30
< 4. 17.(목) 조간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의 대리점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제재

-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제공 요구 및 소모품 거래처 제한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이하 ‘한국타이어’)가 ①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②티티에스(The Tire Shop, 이하 ‘TTS’)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 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TTS(The Tire Shop) 대리점 : 승용차와 소형트럭 대상 타이어에 특화된 대리점 유형으로 전체 한국타이어 대리점의 약 20% 차지(2023년 말 기준)

** 대리점이 취급하는 비 타이어 상품으로 배터리, 필터, 와이퍼, 워셔액 등이 해당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 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하여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 (명칭 ‘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하였다.

* 한국타이어는 대리점에게 전산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대리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품 발주, 재고 관리, 판매 등 대리점 업무 전반을 수행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 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본사에게 노출되어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대리점의 판매 금액이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하였다.

* 대리점의 마진 = 대리점의 판매 금액 -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금액

또한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아울러 해당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대리점법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담당 부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유통대리점조사과	책임자	과 장	조원식 (044-200-4603)
		담당자	조사관	고보경 (044-200-4607)



1

법 위반 내용

-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공급하는 타이어 등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 본사가 대리점의 상품 판매금액을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되어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임에도,
 - 한국타이어는 이러한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자신이 개발하여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에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를 입력하도록 거래계약서에 명시하였다.
- 또한, 한국타이어는 TTS(The Tire Shop) 대리점을 대상으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는 거래처들을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로 제한하였다.
 - 한국타이어의 대리점은 모두 비전속 대리점이므로 소모품 거래처 결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대리점의 소모품 조달 거래처를 자신이 지정하고 제한하였으며,
 - 만일 대리점이 소모품 거래처 제한 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한국타이어의 일부 상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 다만, 한국타이어는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인 2024년 11월 대리점과 수정된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였다.

* (자진시정 내용) ①계약서에서 판매정보 입력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전산프로그램 상 본사의 대리점 판매정보 열람 권한을 삭제함 ②TTS 대리점 계약서에서 소모품 거래처 제한 조항을 삭제함

-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들이 대리점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대리점 경영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대리점법 제10조(경영활동 간섭금지) 제1항
- **【조치 내용】**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경영활동 간섭 행위가 대리점법 제10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게 통지토록 하는 **통지명령**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의의 및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이다.
 - 동 조치는 본사로부터 부당하게 간섭받아 온 대리점의 경영활동 자율성을 회복하여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고히 확립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 시장에서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거나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참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일반현황 및 관련 법 규정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일반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업체명	대표자	설립일	자산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이수일	2012. 9. 1.	6,568,577	3,024,974	24,400

2. 관련 법 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생략)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3.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4. (생략)